

# 주민 아이디어 반영 도민제안제도 ‘유명무실’

### 전남도, 올 337건 접수 고작 12건 채택

### 담당 실과, 규정 안 지키고 인센티브 소극적

주민의 아이디어를 전남도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도민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안건이 담당 실과의 검토과정에서 ‘불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안을 받은 담당 실과에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도 깊은 검토나 인센티브 지급 등에도 소극적인 것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모두 337건으로, 이 가운데 채택된 제안은 12건(3.5%)에 불과하고, 심사중은 84건(24.9%), 불채택, 취하

등은 241건(71.5%)의 비중을 보였다. 채택된 안건은 ‘웃음 꽃피는 민원실’, ‘임산부 직원 배려’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 대부분이었으며, ‘영유아 통학버스 안전 확보도 확대 실시’ 같은 제안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심사중이다.

특히 도민이 직접 전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작성한 제안들은 대부분 불채택되고 있다. 남도학숙 입사 자격을 경인지역 소재 대학생까지 확대해달라는 개선 제안에 대해서 전남도 해당 실과는 “불필요한 과열경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 입장을 전했다. 2007년에 같은 제안이 남도장학회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는 것이다.

또 농촌 버스정류장에 밤·새벽 시간에 기다리는 승객이 있다는 표시등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기업 청사 로비에 전남관광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단순 건의사항’이라는 이유로 각각 채택되지 않았다.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 들어 최근까지 12건의 공개 제안은 모두 불채택됐거나 심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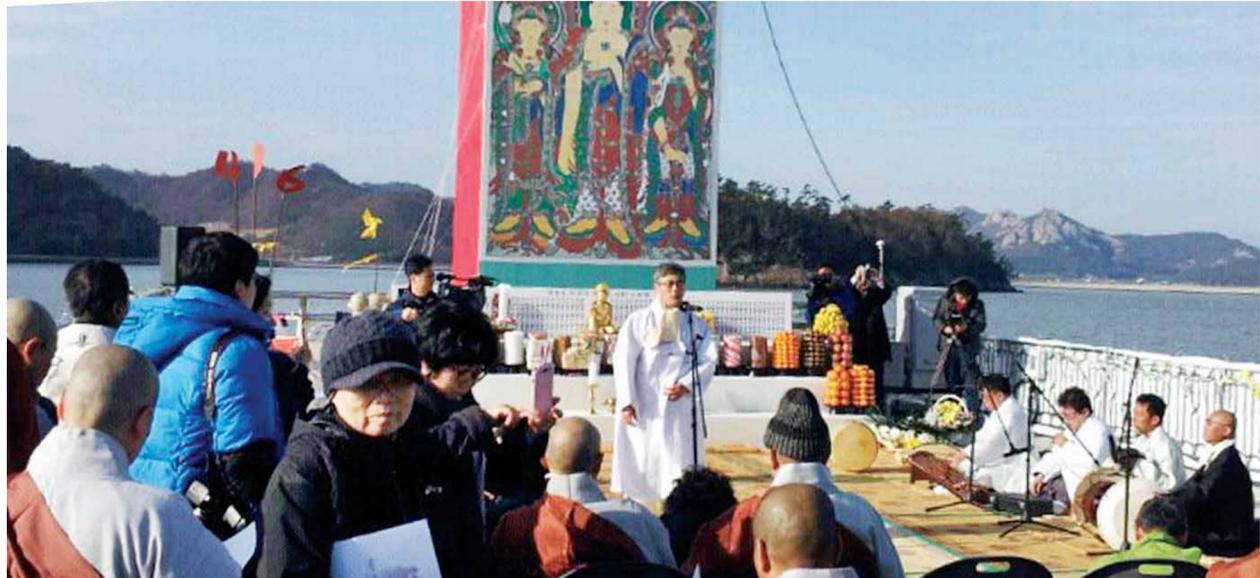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판단을 주민 입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위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모(57)씨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렵사리 작성해 올려놨는데 한참이 지나도 답글이 없었다”며 “제안 내용을 담당 실과에 맡기기보다는 중립적 기구에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

했다.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은 제안이 접수되면 담당 실과, 전문가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장안의 등급 심사·결정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부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건이 담당 실과의 판단에 의해 불채택되면서 심의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담당 실과보다 다양한 인사들이 통합적인 사고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수륙재 봉행

대한불교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지난 29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수륙재를 봉행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을 달래며 위로하기 위한 의식이다. /연합뉴스

# 세월호 피해자 구제 대책법에 배상·보상 공동 명시

### 국회 TF 합의

국회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호재 의원은 지난 28일 당 상임위원회·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30일 “관계법령에 따라 배·보상을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나중에 심의해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으나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으나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뒤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고 자고 맞서는 등 배상 범위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는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매듭짓지 못한 쟁점은 원내지도부로 남겨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연금기금 2053년 고갈”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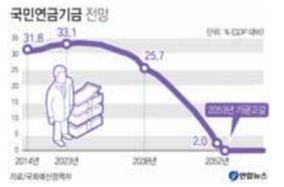
### 정부 추계보다 7년 빨라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2060년)보다는 7년 빠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로는 31.8%다.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다.

하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즉,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



되기 직전인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꼭짓점에 이르러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송정역·목포역에 전남관광정보센터 설치

전남관광정보센터가 내년부터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에 설치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내년 1월부터 목포역 광장 내 택시승강장 옆에 관광정보센터(18㎡)를 운영한다.

도는 또한 내년 4월부터는 광주 송정역사 2층에 관광정보센터(33㎡)를 설치한다.

목포역 관광정보센터에는 직원 2명이, 송정역 관광정보센터에는 직원 4명이 각각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다. 주로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상담을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현재 도청 앞 남막마루 관광정보센터 근무자 4명을 1명으로 줄이는 등 인력과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KTX 호남선 완공에 대비해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거점역인 송정리역과 목포역에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서승환 국토부 장관 KTX 광주차량기지 방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KTX 오송역과 광주차량기지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공정의 진척도와 개통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고속철은 현재 공정률이 97%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건설 상황과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개통 후 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8조4000여억원을 들여 오송~광주송정 구간 182.3km에 새 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호남선 서울 용산~광주 송정 구간을 66분 단축된 1시간 30분대에 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2015학년도 수시합격자 및 예비 중국어과 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기초 특강

# 12월 예비대학생 중국어 대 특강

● 접수기간 : 11월 17일 ~ 11월 28일 ● 개강일 : 12월 1일

**대학생활 · 취업필수**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특강대상** ▶ 수능 응시생 ▶ 新-HSK 중국어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  
▶ 중문과 예비 대학생 ▶ 입학 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

**특강과정** 2개월 중국어 기초 완성반  
수강기간 || 12월1일 ~ 1월 30일  
수강특징 || 2015학년도 대학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소수정원제 그룹수업  
입학 전 기초과정 총 정리 및 대학년 과정 사전 학습  
충분한 자극제,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습 동기 부여

**강의시간** 매일반 ▶ 오후반 5시 ~ 6시  
매일반 ▶ 저녁반 7시 ~ 8시

**수강특전** 1. 중국어 기초 단어쓰기 노트 무료증정  
2. 수업교재 2권 무료증정

www.gotochina.co.kr  
지금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 구오빨리

경품행사

##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격을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계약시 경품 일요권 포함)  
1등: 황금열쇠수금1방(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 (동인 1인 포함)3명

**선물2** (계약시 경품 포함)  
1등: [기념품(책)] [핸드크림] [지팡이세트]

**선물3**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1등: [통장지갑] [클라우드식 일제용기세트] [세라믹로팅 냄비]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격기준:  
- 총자산 10억원 이상 일평균  
-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가입고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  
- 신용등급, 자동차보험 가입고  
- 전자기능 신구  
- 자영업 3년 이상 신규자  
- 워크카드 신규자(퇴직자 아님고)  
\* 경영추진계획서 작성하지 않 이윤 기여자  
\* 상기 자격기준은 특별히 한정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